

사랑, 정치, 자연·풍경 그리고 풍류

고시조에 담긴 사연과 일화 들춰보기



이야기로 읽는 고시조

임형선 지음

고려 말부터 발달해 내려온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정형시가 바로 시조다. 대부분 중고교 시절 일시를 위해 배웠던 게 기억의 전부일 만큼, 오늘날 시조에 대한 관심은 그리 많지 않다. 그러나 시조는 많은 이들을 통해 여전히 창작되고 있고 그 명맥 또한 이어지고 있다.

고시조를 이야기로 재미있게 풀어낸 책이 출간됐다. 시조시인이자 문학가인 임형선 씨가 펴낸 ‘이야기로 읽는 고시조’에는 당대의 시대적·역사적 배경을 토대로 정치, 경제, 사회의 제 모습이 담겨 있다.

사실 지금까지 기존의 시조 책들은 어구 풀이를 중점에 두고 현대어로 해석하는 데 초점이 맞춰져 있었다. 시조를 이해하는 데 필요한 시대적 배경은 간략히 설명될 뿐이었다. 하지만 고시조의 참맛을 느끼려면 시조에 담긴 사연과 일화, 시대적·역사적 배경을 통합적으로 접근해야 가능하다.

예를 들면 이렇다. 현대사회에서 장관이나 고위직 공무원을 하기 위해서는 청문

회라는 관문을 통과해야 한다. 재산, 병역, 세금 문제뿐 아니라 평판이라는 사회의 평가도 넘어야 한다. 오늘날에도 이러한데 유교를 숭상하던 조선시대에는 어떠했을까. 두말할 필요 없이 임을 절차 또한 까다로웠을 것이다.

그런데 백호 임제(1549~1587)의 경우를 보자. 그는 부임하는 길에 술 한병 들고 기녀의 무덤을 찾았다. 무덤의 주인공은 황진이이다. 그곳에서 백호는 다음과 같은 시를 남겼다. ‘청초 우거니 공에 자는가 누웠는가/ 흥안을 어두두고 백골만 문혔는가/ 잔 잡아 권할 이 없으니 그를 슬허하노라/’

백호는 39세에 요절한 천재시인이었다. 성정이 곧았으며 자유분방한 대장부였다. 그가 서북도 병마평사로서 부임하는 길에 황진이 무덤을 찾아 술을 따랐다. 평소 흠모하던 황진이가 석달 전에 죽었다는 말을 듣고 아쉬운 심정을 읊었던 것이다.

이처럼 책에는 이야기를 매개로 시조가 재미있게 기술돼 있다. 정몽주의 ‘단심가’ 이방원의 ‘하어가’ 등도 이 같은 관점에서 접근하고 있다.

또한 저자는 ‘사랑’, ‘정치’, ‘자연’ 등을 매개로 작품 속에 드러워진 사연과 일화를 들춰낸다. 당시의 시조들을 보면 사랑 앞에 솔직하고 현대보다 오히려 파격적인 부분들이 많이 담겨 있음을 깨닫게 된다.

〈채륜사·1만8000원〉

/박성천기자 skypark@kwangju.co.kr

과식의 심리학

키마 카길 지음



현대인의 과식 문제는 중요한 화제 가운데 하나다. 음식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먹방은 인기 프로가 된 지 오래다. 그러나 먹거리를 다이어트에 끊임없이 초점을 맞추는 대중매체도 과식의 폐해에 대해서는 애써 외면을 한다.

사실 모든 생물종은 종종 과식을 한다. 진화의 역사를 거슬러 올라가면 이런 현상은 뚜렷해진다. 과식은 먹을 음식이 있을 때 많이 먹어두려는 진화적 적응의 한 형태였다. 그러나 현대인들이 겪는 과식 문제는 그 같은 형태와는 다소 거리가 멀다. 지금과 같은 과식 현상이 나타난 것은 2차 세계대전 이후 자본주의 체제를 공고히 쌓은 서구 문화권에서 주로 나타났다.

지난 수십 년 사이에 대체 무슨 일이 일어난 것일까. 현대인들이 씨름하는 과식의 원인을 다각도로 분석한 책이 출간됐다. 워싱턴대 키마 카길 부교수가 펴낸 ‘과식의 심리학’은 현대인들은 왜 과식하며 해결책은 무엇인지와 과



저자 키마 카길은 과식은 개인만의 문제가 아니라 소비주의와 물질주의가 만들어낸 사회·문화적 문제라고 진단한다.

는다.

저자는 현대인들이 공통 관심사가 돼 버린 과식의 원인을 소비문화의 급속한 팽창에서 찾는다. 자본주의 체제에서 물적상품과 자원의 소비와 비례하여 과다한 섭취 또한 증가했다는 것이다. 과식을 단순한 개인의 식습관이나 절제력의 문제로만 치부할 수 없는 이유다.

책은 소비 자본주의라는 더 넓은 맥락 속에서 과식 현상을 이해해야 한다는 논리를 펴낸다. 소비주의라는 집단 심리가 어떻게 정치적, 경제적, 역사적인 맥락 속에서 형성되었는지를 들여다본다. 이 같은 문제는 사회적 병리현상을 잘못된 문화에서 그 원인을 찾는 것과 같은 이치다.

저자는 과식 문제는 소비문화의 두 축인 식품산업과 제약산업의 치밀한 전략에서 기인한다고 본다. 두 거대 산업은 심리학을 매개로 소비자들을 호도하고 ‘욕망’을 교묘하게 부추긴다. 특히 식품 산업은 시장조사와 실험심리학자들

을 끌어들여 효과적인 브랜딩 전략, 다시 말해 더 먹도록 유혹하는 상황적·환경적 자극을 오랫동안 연구해왔다. 일테면 이런 것들이다. 다양한 상품으로 소비자 선택 기회를 늘리는 법, 절제할 수 없을 만큼 맛있는 간편식품을 제조하는 법, 계급과 성 그리고 나이에 따른 욕망에 호소하는 법 등이다. ‘무설탕’ ‘무지방’ 같은 ‘무free’라는 표현이 들어간 상표를 출시하며 아무리 먹어도 칼로리에 합산되지 않는다고 소비자를 속이는 방식이 이에 해당한다.

그뿐 아니라 식품 라벨에 ‘자연natural’ ‘순順’ 같은 문구를 붙여 이득을 챙겼다. 인공 재료나 유전자 조작 재료가 들어 있지 않은 것처럼 광고를 하는 것이다. 또한 음료산업은 탈수증을 방지하려면 일반적으로 당을 첨가해 만든 음료를 마셔야 한다고 권한다.

제약산업 역시 유사한 방법을 사용해왔다. 많은 약품이 과식과 과체중, 비만을 치료해준다고 안심시키지만, 사실은

플라세보(placebo) 효과만 있을 뿐 근본적 방법은 아니다.

몸무게를 줄이는 방법은 근본적으로 소비를 줄이는 데 있다. 그러나 소비자들은 잘못된 정보나 과장된 광고에 현혹돼 다이어트 식품이나 제품, 서비스를 구매하는데 막대한 돈을 지불한다. 저자는 임상사례 연구를 토대로 더 많은 소비로 과식 문제를 해결하려는 시도는 성공하지 못한다고 단언한다. 소비를 광범위하게 줄이는 것만이 과체중과 비만, 대사장애를 직접적으로 막는 방법이라는 것이다.

“소금과 설탕, 지방에 길들여진 감각을 뿌리치고 다른 향, 맛, 식감에 대한 감각을 받아들이는 일은 쉽지 않다. 개인의 삶에 엄청난 변화가 요구될 뿐 아니라 문화적으로도 큰 전환이 필요하고 생활 환경에서도 제도적 변화가 수반되어야만 가능하다.”

〈루아크·1만5000원〉

/박성천기자 skypark@kwangju.co.kr

고구려 중심 새 문명 원했던 소수림왕 구부



고구려6

김진명 지음

“우리 젊은이들이 ‘삼국지’를 읽기 전에 ‘고구려’를 먼저 알기 바란다”며 김진명 작가가 야심찬 역사소설의 첫발을 댔 지 6년이 흘렀다. 출간 즉시 베스트셀러 1위, 온라인 서점이 선정한 올해의 소설 1위에 올랐던 ‘고구려’.

이번에 출간된 ‘고구려6’은 작가의 상상력을 유감없이 보여주는 책이다. 작가의 고대사를 보는 역사관식은 낯설 만큼 예리해졌고 확장됐다. ‘고구려 6’의 중심인물은 소수림왕 구부다. 작가는 1~3권 ‘미천왕편’을 통해 400년 만에 낙랑을 되찾으며

제국 고구려의 초석을 닦아나가는 영웅들의 이야기를 다뤘다. 4~5권 ‘국곡원왕편’을 통해서 전쟁의 나라 고구려에서 ‘전쟁 없는 고구려’를 실현했던 태왕 사유의 삶을 다루었다.

그리고 이번에 나온 6권 소수림왕편에서 구부는 그 모든 것을 뛰어넘는다. 그는 국민의 더 나은 삶을 위해 법전을 창제하고 불교를 받아들인다. 물론 구부의 시대 난관이 없었던 것은 아니다. 주변국의 정세는 더욱 복잡해졌고 백제는 이미 강국으로 발돋움한 상태다.

구부의 포부는 동아시아의 전쟁과 정치의 판도를 넘어선다. 한족이 꿈꾸는 ‘한(漢)의 바다’를 봉쇄하고 고구려 중심의 새로운 문명을 만들어내길 원한다. 도도한 황하의 거친 흐름도 구부라는 인물 앞에서는 보잘것없는 흙탕물이 되고 만다.

〈새움·1만3800원〉

/박성천기자 skypark@kwangju.co.kr

한반도는 공룡의 마지막 서식지였다



공룡의 나라 한반도

허민 지음

일반적으로 공룡 화석이라고 하면 몽골이나 북미의 대평원의 배경이 먼저 떠오른다. 하지만 마지막 공룡 시대인 백악기, 한반도는 공룡 최후의 서식지였다. 급격한 환경 변화로 이동하던 공룡들이 도착한 마지막 장소가 바로 한반도였던 것이다. 중생대 대표 화석인 암모나이트 대신 다양한 공룡 및 익룡 화석과 발자국 화석이 우리나라에서 발견되

는 것도 당시 한반도가 바다가 아니라 육지였기 때문이다.

한국공룡연구센터 소장인 허민 전남대 지구환경과학부 교수가 펴낸 ‘공룡의 나라 한반도’는 고생물에 대한 생생한 묘사와 발굴 프로젝트들, 학명 명명에 관한 일화들이 담겨 있다.

저자가 책 첫머리에서 밝힌 대로 우항리 초식 공룡 발자국 발견은 한반도 지질학 역사상 최초의 대규모 발굴이었다. 이곳 발굴을 시작으로 한반도에서 다양한 공룡 발자국이 발견된 곳은 30곳이 넘는다. 지금까지 우리나라에서 발굴되거나 자연적으로 노출된 공룡 발자국만 1만 개가 넘는 정도로 한반도는 공룡들의 서식지였다. 〈사이언스북스·1만5000원〉

/박성천기자 skypark@kwangju.co.kr

일은 사람과 세상을 이어주는 다리



일철학

박병원 지음

“직업은 당신을 지켜 주지 못합니다. 이제 스스로 ‘일’을 사유해야 합니다.”

청년 실업자 100만 명, 저성장·일자리 절벽 시대에 내가 지금 하고 있는 ‘일’은 무엇일까. 인공지능의 등장으로 인간의 본성과 능력에 대한 근원적인 물음에 직면하고 있는 오늘날, 앞으로의 인간의 일은 무엇이고 그 일을 어떻게 해 나가야 할까.

‘일’에 대한 고정관념을 부수는 혁명적 철학 선언을 담은 ‘일철학’은 30년 가까이 다양한 현장에서 역동적으로 일하며 독자적인 학문체계를 쌓아 온 ‘현장철학자’ 박병원이 일에 대한 실질적 기준을 제시하는 책이다.

저자는 직업적 의식이나 경제적 가치로 국한되는 일 뿐만 아니라 ‘사회역사적 관계 맺기’로서의 일에 주목한다. 사람과 세상을 잇는 다리로서, 일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관계’임을 밝히고, ‘일자리 창출’보다 시급한 것은 ‘일의 본래 가치 회복’임을 천명하며, 일을 일답게 정립해 사회역사적 건강성을 담아 낼 수 있는 새로운 공론의 장을 함께 고민해 나간다. 〈판미동·1만5800원〉

/이보람기자 boram@kwangju.co.kr

광주·전남
기능장1호

大山 프리모 남가발

시술전

시술후

시술전

시술후

국무총리상 표창 · 보건복지부장관 표창
광주광역시상 표창 · 광주남구 구청장 표창

특수가발 별매(원터치)
완전 탈부착형
테이프 X, 핀 X
원장 직접시술 1만여명 내공!

M.H.타사
130만원
신제품
59만원~
브랜드 동급제품

이용기능장 원장 직접시술

매주 화요일, 휴무일요일 정상영업)

본점 : 광주광역시 남구 주월동 라인가든 상가2층
대표전화 : 062)673-5858, 672-4622
원장 이수재 010-3600-9955

NAVER 주선(D) 대신프리모

새로운 혁신! 세상 어디에도 없던 디스포저
세계최초 BLDC 전자모터 음식물 분쇄기

SDR SMART DISPOSER ROOT

2016 International CES LAS VEGAS, January 6-9 (미국 2016 CES 출품)

황금맷돌

주방용 음식물 분쇄기

발명특허제품 · KC 전기용품 안전인증 · 환경부/상하수도협회 인증

10년 보장(모터)

10년 보장(모터)

3년 연속 조선일보 선정
대한민국을 빛낸 히트상품 선정

CES 한국경제 환경부 동부화재

상/담/문/의
(062)515-1144